

# 함평군, 깨끗한 수돗물 공급위해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 2024년까지 209억원 투입 예정

### “누수 저감·노후 상수관망 정비”

함평군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까지 209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한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현대화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

급하고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까지 함평읍, 학교·읍다·대동면의 노후관을 정비하고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6일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부위원장, 최등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의 군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등호 본부장은 “수도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본 사업에 적용하여 누수 저감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환경부가 주관한 일 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수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 영광군, e-모빌리티 이용·안전시설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

### 사업비 42억 원...2022년까지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영광군은 지난 25일 영광읍사무소에서 사회·기관단체, 이장단, 도로주변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e-모빌리티 전용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영광읍내 15.7km의 e-모빌리티 이용 안전시설물 설치, 주차면 조성, 부대 시설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2년에 걸쳐 시행하

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영광읍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주요 노선에 대한 설명과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상인들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영광군은 주민 및 사회·기관단체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영광읍 시가지 내 거리 질서 확립 및 교통 이용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 “코로나19 속에도 양국 학생들 간의 우정은 계속” 영암군, 자매도시 中 후져우시와 온라인 교류

영암군은 25일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湖州市)와 온라인 클라우드 미팅 플랫폼(Umeet)을 이용한 청소년 온라인 화상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교류는 2014년 이후 매년 영암여고 학생과 중국 후저우시 신세기외국어학교 학생 간 이뤄졌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이뤄지지 못한 대면 만남 대신 언택트 온라인 만남으로 진행했다. 영암여고 학생들과 후저우시 학생들은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학교생활과 일상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19로 인

해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다. 임문석 총무과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학생들 간의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화상교류를 활성화하여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는 2013년 영암군과 중국 후저우시 양국 도시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계획된 교류사업으로, 매년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국의 청소년간 우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신흥동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안전문화운동

목포시 신흥동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내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범국민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안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신흥동주민자치회 위원과 신흥동 통장, 동 직원 40여명이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미의 거리 및 하당 일원에서 2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목포=박정수기자

## 무안군, 간단하고 찾기쉬운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 성인문해교실 6개소 교육생 60여명 대상

무안군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성인문해교실 6개소에서 교육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바르게 쓰기 홍보를 실시했다. 성인문해교실에서는 홍보 동영상 상영과 함께 배움에 열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과 한글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은 “기존 지번 도로에 익숙해 도로명주소가 낯설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알게 되어 좋았다”면서 “교육을 통해 한글도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건물 중심의 주소 제도이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용이



하고 주소체계가 단순하다”며 “주민들의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신안 자은서 국제보호종 황새 1개체 발견

### ‘E19 가락지’ 부착...황새복원센터서 올 태어난 수컷

신안군은 국제보호종인 황새 1개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신안을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황새는 시베리아 남동부,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하고, 중국 남동부와 한국에서 월동하는데 국내에서는 적은 수가 관찰되는 겨울철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에 위기종(Endangered)으로 분류돼 세계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보호종으로, 전세계 개체군이 2500개체 미만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및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증식을 통해 태어난 황새가 자연에서도 번식에 성공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50-60여 개체의 황새가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

를 찾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신안을 찾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일 1개체가 처음으로 신안 자은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황새는 ‘E19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로 이름은 ‘살목’이다. 황새복원센터에서 인공증식을 통해 올해 태어난 어린 수컷으로 지난 9월 자연으로 방사됐다. 살목은 ‘기울어진 집을 바로 세우거나 내려앉은 기둥을 올려 받치는데 쓰는 지렛대’란 뜻으로 황새 복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겨울 자체 모니터링 전담팀을 통해 C77 가락지를 부착한 ‘평화’, 일본에서 방사한



신안을 찾은 국제보호종 황새. (사진=신안군 제공)

1개체, 야생 황새 3개체 등 총 5개체가 압해, 압태, 자은 등지에서 월동한 것을 확인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정한 신안은 철새들에게는 천국같은 지역”이라며 “더 많은 황새가 신안을 찾도록 안정적인 서식지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동채재본부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